

군산시, 경제 살리기 집중

코로나19 대응 500억원 추경예산 편성

군산시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 편성, 신속집행을 통한 재정투입과 전방위적인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나선다.

우선 먼저 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긴급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조기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방역사업, 재난예방 정비·지원 확보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사업과 거점 직업훈련기관지원 사업, 전북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부지매입 등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역 내 추가 감염을 막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약품, 열화상 감지카메라, 이동형 X-ray 등 예방물품 구입과 격리자 지원, 시민 홍보물 제작 등에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약 6억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설상가상으로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국가예산 확보에도 전방위적으로 나선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군산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경기진작, 방역지원과 관련하여 총 23개, 약 900억원 규모의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본격적인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분야에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 15억원, ▲위기기업지원 사업 30억원, ▲정년창업가 e-마켓 플레이스 구축사업 3억원 등이며 경기진작 분야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100억원, ▲고용위기 대응 희망근로사업 87억원 ▲일감 창출형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 45억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16억원 등이다.

시는 방역지원을 위해서도 ▲전통시장 및 상가 코로나 예방물품 지원사업 5억원, ▲북한 스마트 그린롬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 30억원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여 주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고 위축된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함께 전통시장 내 음식점 애용과 장보기 등을 실시하는 '가치샵시다' 캠페인을 시행 중에 있다. 다음으로 연매출액 1억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되던 카드수수료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 지원하고, 소상공인 특별보증 자금지원과 관내 기업체 피해접수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업소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등에 손 소독제 10,250여 개와 목욕장 및 숙박업소에 마스크 3,400여 개 배부를 완료했으며 추후 음식점에 마스크 1만5,400여개를 추가로 배부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가 확진자 발생으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선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마스크 판매량 확대 정부에 건의"

강임준 군산시장, 안전취약계층에 공급하기로

군산시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2일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마스크 공공판매 현장인 우체국, 농협 하나로 마트 등을 찾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마스크 공공지급 방침을 세워 약국,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망을 통해 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일반시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이에 군산시 관내 공공마스크 판매는 하나로 마트 11개소, 우체국 12개소, 약국 131개소에서 1인당 2매~5매까지 1매당 1천원 정도 가격에 한정판

매 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마스크가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판매량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산시 안전총괄과는 긴급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한 마스크 2만매를 읍면동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병노 안전총괄과장은 "정부의 마스크 판매 통제가 시작되어 지자체에서 조차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안전취약계층 공급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병원 안심병원 지정 운영

익산시는 2일부터 익산병원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병원은 국민안심병원 B형으로 호흡기전용 외래 및 입원, 선별진료실을 운영하게 되고 36개 병상을 호흡기환자 전용입원실로 지정,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선별진료실을 후문 옆 주차장과 응급실 옆에 위치하도록 하고 호흡기질환자의 안심 진료를 위해 1층 주사실을 전용 외래진료실로 변경, 진료를 시작하였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안전한 병원진료를 위해 호흡기 환자의 경우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다른 환자와 분리해 진료하는 체계를 구축한 병원이다. 의료진들은 N95마스크, 고글, 긴팔 일회용방수가운, 라텍스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등 철저한 위생한 위생을 준수하면서 환자 진료를 실시하는 한편, 입원환자의 면회 제한하는 등 감염관리강화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착한 임대료 인하운동 추진

군산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건물주들의 자발적 동참을 협조하는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이란 건물을 임차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건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여 줌으로써 임차인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공동체 정신을 강화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시는 전통시장과 상가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 인하여 동참할 임대인을 찾아 나설 계획이며, 각 읍면동에는 자생조직을 활용해 착한 임대인을 찾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율 시장 "코로나19 강제력 동원"

익산시, 중국인 유학생 전원 검체 채취, 기숙사 입소 후 관리

정현율 익산시장이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익산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 전원을 원광대 기숙사에 입소시키는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특히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국인 유학생에게 강제권을 행사하는 긴급대책을 발표한 정 시장은 정부대응보다 보다 강력한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 시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광대와 협의를 통해 약속한 중국인 유학생의 전원 기숙사 입소가 지켜지지 않고 10여명이 원룸에서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강제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등 지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전원에 대해 입국 후 14일 이상 대학 기숙사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귀국 후 바로 검체를 채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음성이나 유학생에 한 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원룸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현율 익산시장이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원광대와 협의를 통해 약속한 중국인 유학생의 전원 기숙사 입소가 지켜지지 않아 강제권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 측의 기숙사 입소 요구를 거부하고 대학로 원룸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10여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숙사에 입소하도록 조치하고 검체를 채취 하겠다고 이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지

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광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학생 103명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1달 늦춰 3월 말에 등교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어린이집 비상체계 구축

긴급보육·아동 돌봄현황 일일모니터링 실시

익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어린이집의 휴원을 결정함에 따라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비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연합회(회장 한승호)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긴급보육 영유아의 이용시간 내 급·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갖추도록 어린이집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하원 후 매일 자체 소독하도록 하고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1일 2회 발열 체크, 처음 입소하는 아동과 보

호자 대상으로 어린이집 내 안전수칙, 코로나 19 감염 예방수칙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대비 관내 200개소의 어린이집에 마스크(KF80)와 손 소독제(식약처 인증제품) 또는 살균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매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24시간 어린이집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어린이집을 졸업한 예비 초등학생은 초등학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